제약사 글로벌 건강 개선 노력

중·저소득국가 접근위해 R&D 파이프라인 증가
HIV·결핵·말라리아 등 일부 질병 국한

제약산업이 글로벌 건강 개선과 등한시된 질병 퇴치에 대한 요구 증가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분석에서 대부분의 노력이 소수의 저소득과 중간 소득 국가들에서 단지 일부 질병만을 목표로 하는 소수의 회사들에 의해 수행됨에 따라 부분적 진전을 발견한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비이익 기관인 AMF(Access to Medicine Foundation)의 보고서를 보면 제약사들은 매우 낮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R&D 파이프라인이 성장했다.

하지만 환자 접근 프로그램은 단지 몇 가지 질병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일부 회사들만이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의 위험에 대처하고 있으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국제 무역 협정을 지지하는 사람들

은 거의 없다. AMF에 따르면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 우선순위 질병의 파이프라인은 2014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85개의 프로젝트에 도달했다. 하지만 추세는 현재 파이프라인으로 많은 질병에 부족한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활동 증가로 견인됐다.

47개 질환에 대해 개발 중인 후보 약품의 수는 2014년 327개에서 작년 673개로 증가했다.

전임상 프로그램이 2014년 118개에서 작년 388개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전임상 활동에서 붐은 앞으로 임상 프로그램의 급증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파이프라인 규모는 37% 증가했다.

R&D 파이프라인에서 빠른 성장은 비전염성 질환에서 활동 증가가 드라이브했다.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등 이런 질환은 중저소득국에서 큰 문제이지만 업계의 관심은 아마도 서구 시장에서 이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AMF는 회사들이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했다.

공정한 약가 책정 전략에 따른 의약품은 2016년 280개에서 작년 447개로 증가했다.

조사 대상 20개 기업 중 17곳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목표를 설정했고 현재 더 많은 업체가 접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9개의 제약사만이 판매 관행을 개혁하고 있다.

단 4개 회사만이 국가들이 필수 의약품에 대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무역 규정을 일관되게 보증하고 있다.

최종 단계 제품에 적용되는 접근 프로그램들은 2년 전부터 떨어지고 있다.

등한시된 질병에 약품을 기부한 기업의 수는 약간 증가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약품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한 치료들 사이의 고질적 격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약사 글로벌 건강 많은 노력 필요

제약업계는 글로벌 건강에 대응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R&D 활동은 상업적 기회를 계속 추적한다.

AMF는 빈곤 질환에 대한 의약품보다 수익성 있는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약품들이 더 많이 성공적으로 제품 파이프라인에 남아 있다고 보고했다. 2014년 이후,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되거나 적용되는 약품의 수는 여전히 적다.

약품 제조업자들이 특히 저소득과 중간 소득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천식, 간질, 뇌졸중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약품을 조정하거나 혁신하기 위한 상세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이것은 해열제, 백신 등 중요 욕구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한 20개 업체는 2014년 저소득과 중간 소득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과 다른 제품의 수보다 현재 2배 이상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가장 시급한 R&D 프로젝트의 63%는 사노피, 머크 KGA, 노바티스, GSK, J&J 등 5곳이 수행했다.

또한, 업계 R&D 노력은 말라리아, HIV/AIDS, 결핵, 차가스병, 리슈마니아스증(leishmaniasi

s) 등 5가지 고부담 또는 최우선순위 질환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센병, 트라코마(trachoma), 부룰리 궤양(Buruli ulcer), 토양 매개 구충병(soil-transmitted helminthiasis) 등 다른 8개 등한시된 열대병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AMF가 평가한 20대 기업은 글로벌 제약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글로벌 제약 매출은 7680억 달러였고 2022년까지 1.0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AMF는 업계가 글로벌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106개 저소득과 중간 소득국가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질병과 관련된 상태에 대한 제품의 43%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에 부응하는 공정한 가격 책정 전략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

이 중 평가된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은 18%에 불과했으며, 베링거인겔하임, 길리어드 사이언스, 노바티스 등 소수의 기업이 이런 전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46개국 중 13개국이 우선순위로 간주되는 질병과 상태를 표적으로 하는 신제품 등록이 없었다.

이들은 주로 저소득 국가들로, 1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AMF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 국가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가난한 인구 집단에 맞는 가격을 제한적으로만 책정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약사 사업방식 변경

제약사들은 사업 방식을 점차 변경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부 제약회사들이 현재 매우 낮은 소득인 사람들에게 도달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포괄적인 방법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개 제약사 중 7곳이 총 10개의 포괄적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8개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2010년의 8개보다 증가한 현재 17개의 회사들이 의약품 접근과 관련된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9개)만이 판매 보너스를 변경함으로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의 위험에 대처하고 있다.

4개 기업만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국제 무역 협정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헬스 제품에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 라이선싱, 기부 등 3가지 전술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전술을 모두 이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친접근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래에는 이런 전술의 사용이 추가 국가에서 더 많은 제품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특이 분야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10년 전보다 글로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제약회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현재 등한시된 질환, HIV/AIDS, 어린이와 산모 사망 등 일부 질환에만 사용되고 있다.

/MP저널